

“교육 기회균등은 인권의 문제”

日 대학·대학생이 처한 현실 파헤쳐



학생에게 임금을

구리하라 야시시 지음

1960년대 말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확산되고 있던 즈음 이탈리아 학생들은 ‘학생임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이탈리아 사회운동의 하나의 흐름이었던 ‘노동자주의’에 바탕한 것으로, 직접 생산 영역 외에도 가사노동 같은 재생산 영역 또한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필수 요소라는 주장이었다.

학생도 미래의 예비된 노동력이므로 노동자계급 일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사회임금’ 개념과 결합된 주장으로, 유럽 각국은 격렬하게 확산되는 학생운동 대책으로 ‘학생임금’ 대신 ‘미래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대학의 수업료를 공짜로 하는 대학 교육 무상화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탈리아는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체에서 고등교육의 무상화가 진행된 것이다.

대학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도호구에 숭광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리하라 야시시가 펴낸 ‘학생에게 임금을’은 일본 대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을 제시한다. 책은 5년 여 시간차를 두고 일

본의 전철을 달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저자는 일본의 대학이 등록금은 올리면서 대출형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 이유와 교육 기회균등이 갖는 철학적 의미, 고등 교육 무상화 실현 가능성 등도 살펴본다.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파견사원이 되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대학 4년을 다니는데 국립대학 최저 600만 엔, 사립대학 최저 800만 엔 된다고 한다. 비용이 높은 사립대학은 4년간 1000만 엔 이상, 의학부에서는 2000만 엔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다. 학부생의 74%(2012년)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가운데 40%는 집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의 대학등록금은 ‘교육’이 지니는 보편성과 사회성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인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이 어떤 빛에도 속박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을 만큼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학비 없는 대학이다. 대학 교육이 무상화되었을 때 진짜 자유는 시작된다.”

<서유재·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49년 ‘세계 패권’ 향한 中의 감춰진 ‘발톱’

백년의 마라톤

마이클 필스버리 지음



백년의 마라톤

마이클 필스버리 지음

인(忍), 세(勢), 패(覇). 이는 춘추전국시대 자웅을 겨루던 국가들이 활용한 36계와 손자병법의 책략의 핵심 전략이다. 각각은 기다림, 세력, 꾀를 의미한다. 즉 ‘때가 오기 전까지 본심을 드러내지 말라’, ‘적을 포위하라, 적으로 적을 잡아라’, ‘적의 내부를 조종하라’ 약세를 보이면 무너뜨린다’는 말이다.

잠시, 1989년 5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을 떠올려보자. 덩샤오핑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군인들은 탱크를 몰고 나와 광장을 장악했다. 탱크를 막아섰던 어느 청년은 천안문 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고한들에게 끌려갔고 이후 중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허를 찔린 듯 충격에 빠졌다. 미국은 덩샤오핑 정권이 친민주적, 친자본주의적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베이징의 리더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정략학 말하면 덩샤오핑의 속내를 알지



저자 마이클 필스버리는 ‘백년의 마라톤’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차이나 드림의 실체를 분석한다. 2015년 전승절 앞둔 천안문 앞 도로. <광주일보 DB>

못했다. 덩샤오핑과 베이징 강경파들은 미국을 친구라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등장한 시진핑은 취임하자마자 중국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주석으로 행한 첫 연설에서 ‘강한 중국의 꿈’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때까지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차이나 드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시기를 2049년으로 내다봤다. 바로 마오쩌둥이 공산정권을 수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시진핑의 ‘강한 중국의 꿈’은 초강경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온 ‘백년의 마라톤’이라는 대장정이다.

중국 전문가이자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 산하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마이클 필스버리의 ‘백년의 마라톤’은 미국을 뛰어넘는 ‘차이나 드림’의 실체를 분석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숨은 의도를 벗겨낸다. 그 결과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강경파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월해 글로벌 리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확인한 ‘백년의 마라톤’ 전략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인(忍), 세(勢), 패(覇)다. ‘인’은 상대가 이편의 본심을 알더라도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상대가 이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다.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 앞에서 철저

히 자세를 굽혔다.

두 번째 ‘세’는 주변 형세를 충분히 활용해 상대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전략이다. 남의 칼로 적을 잡게 하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 대표적이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와 같은 전략에서 비롯됐다. 당시 중소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은 또 다른 적인 미국을 끌어들이며 소련을 견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기 마련이다. 작금의 중국의 적은 미국이지만 그들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기를 기다린다.

마지막 ‘패’는 고도의 술수 전략과 연관돼 있다. 역대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을 포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 하에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든다는 ‘무위(無爲)’ 정책을 활용한 중국의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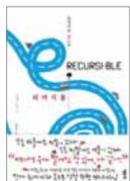
최근 중국 지도부의 언행은 그들의 마라톤 결승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지금도 미국이 ‘마라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패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중국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북한 편을 들어 주곤 했다. 그들의 유희책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림카드날·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년 연속 日 미스터리 3관왕 거머쥔 작가의 소설



리커시블

요네자와 호노부 지음

비밀과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정춘 미스터리물이다.

‘리커시블’은 SF 요소가 가미된 작가의 전작 ‘보틀네’만큼 어두운 작품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지점이 부각돼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마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다. ‘전승’이란 아득한 옛날 그때를 되풀이하는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창조의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뜻을 품는다. 한편으로 주인공 하루키가 이사는 마을의 ‘전승’의 뒤를 쫓는 것은 결국 자신이 살게 될 장소의 근원을 찾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립된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엘릭시르·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그리스 음악에서 현대 음악까지 서양 음악의 역사



김현경의 서양음악사 산책

김현경 지음

음악은 다양한 예술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건네는 장르다. 인류의 역사와 같이 성장한 음악 예술은 자아실현의 결정체이자 인간들의 최고의 업적이다.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움이 빛나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김현경 이하 브릴란데 앙상블 대표가 펴낸 ‘김현경의 서양음악사 산책’은 고대 그리스 음악부터 20세기 현대 음악까지

서양 음악의 역사를 담고 있다. 책은 바하와 헨델, 베토벤과 모차르트, 말러와 존 케이지 등 음악가들의 삶과 사랑도 산책하듯 안내해준다. 한마디로 서양 음악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는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 역사적 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1장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까지를 다루며 2장은 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에 걸쳐 당대의 대가인 바흐,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리스트, 베르디, 바그너의 음악과 장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3장과 4장은 각각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쇼스타코비치의 혁신적 음악과 작곡가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문학세계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경제학자들, 문화산업 블랙박스를 열다



박스오피스 경제학

김윤지 지음

천만 관객 영화가 줄줄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는 한류 상품이 탄생하는 ‘콘텐츠의 시대’. 그러나 여전히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들의 ‘감’에 기대어 성공을 점치고, ‘운’에 기대어 흥행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과 분석이 어려워 ‘숫자가 통하지 않는 산업’으로 악명 높은 업계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노력과 함께 시장에 관한 데이터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운’의 영역이 ‘확률’

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

신간 ‘박스 오피스 경제학’은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하고 ‘대중과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선택의 합’에 도전한 경제학자들의 분투를 담은 책이다. 드라마 시청자들의 계층을 프로파일링해 ‘취향의 지도’를 그려나가고자 한 연구자들, 금융경제학의 이론을 가져와 새로운 용어와 속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을 포착한 학자들, 해체와 솔로활동을 두고 고민하는 아이돌 그룹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제학의 거장들까지... 저자 김윤지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숫자들을 걷어내고 작은 실마리를 따라 현상의 본질을 파고들었던 경제학자들의 끈질긴 추적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어크로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p>	<p>여</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승구 70m 44년형 BID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진 시술후 시술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